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7년 12월 12일(화요일) 저녁18:30,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5명) - 김담주, 박준미, 유근영, 박미현, 박정수
 교원위원(3명) - 양순실, 봉성화, 마혜란
 간사 - 조문숙

상정안건

1. 2018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보고 및 자문
2. 기타 안건

○ 간사: 지금부터 제4기 3회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바쁘신 중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치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유치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간사: 다음은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 원장: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간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안건에 대한 자문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학부모위원 한 분을 빼고, 나머지 위원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3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먼저 지난 9월 13일 비상소집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1차, 2차 휴업 예고에 따른 의견 제시 및 자문이었습니다. 회의에서 1차 휴업은 되지만, 2차 휴업은 안된다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학부모공청회, 홈페이지 관련 안내문 탑재 등을 하였으나, 한유총의 휴업철회로 1차 휴업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유치원장으로부터 2018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자문, 기타 안건제출에 따라 개최공고를 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 지난 12/1(금)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먼저 살펴보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네. 그럼 잠시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살펴보고, 자문하시거나, 나눠야 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정리 자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

- 위원장: 살펴보신 결과,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십시오.
- 학부모위원: 공기 청정기 의견은 점점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원장: 제가 써봐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대여해서 코디가 2달에 한 번 관리하는 것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원장님들께 알아보니, 직접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수시로 필터청소를 할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히터나 에어컨 필터 먼지제거 하듯이 수시로 청소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간사: 홈페이지를 모바일폰으로도 호환되고 달라졌지만, 몇 분들이 접근이나, 자료다운이 어렵다며 앱 이용을 권의하시던데, 그렇게 홈페이지가 불편하신가요?
- 학부모위원: 홈페이지 접속하면 팝업창에 중요한 소식들 뜨고 그러는데, 아마 자료 같은 것은 PDF뷰어 같은 것이 안 깔려있으면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 위원장: 저 같은 경우, 통신문이 인쇄 배부되니까, 그거 붙여놓고 수시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아이들 활동사진 다운 받을 때 들어가게 되고.
- 교원위원: 홈페이지와 인쇄배부 2가지로 제공하고 있으니, 부모님께서 자녀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조금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현관에도 등/하원 시 오시는 부모님들 보시라고 통신문 크게 A3로 인쇄해서 게시하고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시는데, 이것도 학부모님 의견들이 다 달라서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 원장: 급식운영에 대한 의견은 매번 있는데, 사실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조리사님들이 시간 내 대량 조리가 가능한 음식이어야 해서요. 어떠신가요? 개선할 점이 많은가요?
- 학부모위원: 모든 부모들의 의견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잘 안 먹는 김치나 나물류 등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아요.
- 간사: 오전 간식에 대한 의견도 있어서 교사들은 그냥 다 우유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학부모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교원위원: 제 주변에 교사인 친구네 원에서는 꼭꼭 씹기 간식이라고 해서, 멸치나 견과류를 개인적으로 통에 담아와, 매일 먹을 만큼 먹고, 비워지면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 학부모위원: 집에서는 멸치나 견과류 잘 안 먹으니까, 원에서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원장: 그것을 매일 제공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 학부모위원: 원래는 음료만 제공되다가, 1~2번 과일이나, 다른 것도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된 것이니, 지금처럼 해도 될 것 같아요.
- 원장: 전에 건강음료 건의가 있어서 대추차 한 번 제공했는데, 3세반에서 거의 못 먹어서 적용하고 싶어도 안 되는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 학부모위원: 이런 건의사항은 항상 나올 겁니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 원장: 교육비 납입계좌가 종류에 따라 달라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항목에 맞게 입, 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을 하고나서는 이전 통장계좌를 마감하고, 새 계좌를 사용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학부모위원: 그러면, 납입일정 안내문에 계좌번호를 공지하면 어떨까요?
- 학부모위원: 개인정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원장: 어차피 고지서에 공지되는 거라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고 괜찮다면 공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학부모위원: **종일반 피드백이나 동극이나 요리에 국한된 사진게시 등에 대한 학부모의견**은 저도 동의합니다.
- 원장: 저도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건의한 부모의견을 그대로 종일반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고, 개선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간사: 2018학년도 종일반 운영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산타선물을 일괄 유치원에서 사이즈 맞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시던데, 옛날에는 그렇게 구비했었는데, 몇 년 전 부모님들께서 어차피 또 해 줘야 하는데, 산타가 오신 날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주면 안 되냐고 제안하셨어요.
- 학부모위원: 우리 애는 신경 안 쓰던데...산타잔치해도 성탄절날 또 받고 싶어 하긴 해요.
- 간사: 사실 성탄절은 석가탄신일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선물을 받는 날로 되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실질적인 의미를 나누고, 선물이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선물을 일괄 정해도, 개별 준비해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학부모님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치원학부모카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던데, 휴업 얘기 있던 때를 제외하곤, 방문인원이 거의 없어, 계속 운영할 수 있나 싶어요. 다음에 누가 운영을 이어받으실지도...
- 원장: 다음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원하셔서 창구가 마련되어도 늘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하시는 분들만 하게 되구...그래도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 원장: **2017 방과 후 특성화활동 과목**에서 개선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신 의견이 소수 있으신데, 어떠신가요?
- 학부모위원: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골고루 할 수 있어서요.
- 원장: 영어교재는 한 3년 했는데, 변화를 줄 필요는 없나요?
- 학부모위원: 사실 유아시기의 영어교재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강사가 제일 중요하죠.
- 원장: 맞습니다. 강사의 질 관리, 유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방과 후 특활운영은 현행대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신지요?
- 위원장: 지금처럼 방과 후 특성화활동을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방과 후 특성화활동 과목, 운영에 대해 전원 이의 없이 동의)

- 위원장: 더 이상 부모의견 조사결과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그 외에 기타 안건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원장: 통신문에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물가,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교육비 인상**은 불가피한데,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한 상한제에 맞춰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교육비 인상에 대해 전원 이의 없이 동의)
- 위원장: 이건 주변에 어떤 학부모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연중 1~2번 견학도시락 싸는 것과 견학비용 추가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구요. 이전 원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요.
- 원장: 사실 도시락 원에서 김밥이나 주먹밥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진흥원을 가거나 부득이 한 연령만 갈 경우,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모두 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협조를 드리는 건 먼 거리이거나, 장시간 가게 될 경우, 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어 그렇습니다. 1년에 적게는 1번 많게는 2번 많이 부담스러우신가요?
- 교원위원: 아이들에게 일괄적인 도시락보다는 각 가정의 스타일로 아이들이 부모님 정성을 느끼며 매우 좋아하고 잘 먹어요.
- 학부모위원: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하지 않았다가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원장: 무료인 곳을 가더라도 유치원에서 기사님께 운행비용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싸고 무료인 곳만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주제에 맞고 꼭 필요하다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가야겠죠.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단체로 관람하면 더 저렴하기도 하구요.
- 교원위원: 오히려 비용을 자주 견더라도 문화체험을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으셨는데요. 저희원은 미리 견학비용을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 원장: 상황에 따라 아이들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변수를 다 고려해 견학비용을 미리 걷는 것도 무리지 않나요? 만약에 비용을 초과한다면 다시 걷기도 어렵고... 그동안 계속 운영해 온 방침을 몇 분의 의견으로 흔들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원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 보니, 이전 기관과 다르면 불만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그리고 **6세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뤄지나요?
- 교원위원: 네. 유아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유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지, 119에 바로 신고하는 것 등을 연계하기 위함입니다.
- 위원장: 아마 6세 아이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놀랐던 것 같아요.
- 원장: 누군지 알겠습니다. 당시 교육을 하고, 유아의 안색, 컨디션이 안 좋아져 담임교사가 저에게 바로 보고하고, 부모님과 통화하여 귀가조치를 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더미를 이용해 소생술을 하는 만큼 유아 개별에 따라 낫설거나 싫을 수 있기에 하고 싶은 유아들만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강사가 방문하여 지도할 때는 그 유아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심리적인 부분에도 더 신경 써야겠다고 느낀 일이었습니다. 담임도 놀라고, 이후 안전교육 시 더더욱 유아들을 관찰, 챙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의를 더 기울여야겠지만, 안전교육은 나라에서도 강조하는 만큼, 계속 될 예정입니다.
- 학부모위원: 저희 아이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던데,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 학부모위원: 청결에 더 신경 써 주세요. 다문화실을 우연히 보니,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거미도 죽어있었어요.
교사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하니,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원장: 전에는 거의 상주하시는 영어강사분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었는데, 방과 후 특활이 되면서 관리가 다소 소홀해 진 것이 사실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학부모위원: 저희 교육청에서 진행한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가 참 좋았어요. 많이들 안 오셔서 아쉬울 정도로요.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해 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 원장: 어떤 정보들이 있던가요?
- 학부모위원: 초등학교 1학년은 선행학습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받아쓰기나 알림장 등의 활동이 없대요. 지금도 1학기에는 담임교사가 일괄 인쇄해서 붙여 주더라구요.
- 학부모위원: 담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는 분도 있어요.
- 교원위원: 이런 연수는 많이 참석하시면 좋은데...궁금해 하시면서도 참여율은 늘 저조해요.
- 위원장: 듣다보니, 우리원에서 하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독서통장도 그렇고.
- 위원장: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2월에 마무리하며 한 번 더 4회 정기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모두들 고생하셨고, 조심히 귀가하십시오.

기 록 자 : 조문숙(인)

! 뒤에 별첨으로 2018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첨부

2018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총117명		91장 회수(77.8%)						
평가항목	교육과정운영	교육행사 및 현장학습	환경, 위생	급식운영	안전관리 및 교육	학부모교육	종일반	방과후	홈페이지	유치원 운영위원회
평점	4.2	4.2	4.3	4.1	4.5	4.1	4.2	4.4 몰편2, 영어5 과학2, 미술4 국악1 코엔코3	4.2	3.9

< 3세 학부모님 의견 >

- 방과 후 특성화교육을 소수가 아닌 모든 유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 항상 시설보수와 청결유지에 힘써주시는 부분, 큰 변화보다는 같은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유지되어 안정적인 교과운영을 해주시는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견학도 좋습니다.
 - 아이가 주말에도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약수유치원이 최고 아닐까요.
 - 안정감 있고 골고루 균형 잡힌 커리큘럼과 여러 운영정책이 만족스럽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방과 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이 만족스럽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cctv 공기 청정기는 어려운가요??
 - 외부활동을 조금만 더 하면 좋겠습니다.
 - 강당에서든 원내 놀이터에서든 서로 부대끼며 땀 흘려 노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아이들 외부활동 등 스케줄 안내를 홈페이지 외 개별 안내방식도 병행필요
 - 앱으로 원내행사, 소식, 활동 등 알 수 있었으면
 - 점심식사 및 간식을 좀 더 영양 있는 종류들로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 오전간식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음료 위주로만 제공되는 것 같아요 매일은 아니어도 주중1~2회는 다른 간식이 보충되면 좋겠어요.
 - 자유선택영역에서 폐품을 이용한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됐음 합니다. 폐품활용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위해할 수 있는 것들은 걸러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접속을 거의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 못 보는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가능하다면 핸드폰 접속 시에도 장애나 막힘없이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조금 더 보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종일반 feed back 강화요망;; 홈페이지의 사진게시도 천편일률적(요리나 동극이 거의 반복됨) 업뎃으로 실제 종일반 활동의 다양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특히 담당선생님의 코멘트가 극히 적어서(통화기회나 기타) 아이의 종일반 생활모습 등을 알기가 매우 제한적이라 아쉽습니다!

< 4세 학부모님 의견 >

-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재미있어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나 규칙등도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듯합니다. 내년에도 선생님들께 기대를 해 보려구요.
-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끌어주시는 방법에 많이 감사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안전성과 교원능력의 우수성, 아이의 유치원생활에 대한 피드백이 교사와 부모 간에 원활히 이루어지고는 점.
- 종일반 프로그램이 유익
- 사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셔서 아이들 케어가 잘 되는 유치원이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부모와 전화 등으로 자주 소통하는 점 역시 좋았습니다.
-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은 매우 흥미롭게 운영되는듯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믿습니다.
- 교육프로그램도 만족하고 교육 행사 등이 알차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듯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약수유치원 생활, 아이나 저 모두 무척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 아침마다 원감, 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 이름 부르며 반겨주셔서 좋습니다.
- 교육행사나 현장학습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 만족합니다.
- 다양한 행사가 연중 실시되어 아이들과 부모 모두 유치원에 소속감을 가지고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외에 이러한 행사까지 계획 진행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업, 위생상태, 식사, 선생님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 종일반 귀가 차량운행도 함께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 산타행사 선물은 작은 것이라도 원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해 주셨음 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의 크기에서 아이들이 본인의 선물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의 선물도 바라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크기)
- 유치원 홈페이지가 모바일 폰에서 파일다운로드가 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네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담임선생님과 더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면 합니다. 업무가 바쁘실까봐 전화 드리기가 죄송해요.
- 급식 메뉴가 좀 더 다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 반복되는 식단이 많은 거 같아요.

< 5세 학부모님 의견 >

- 부족한 것 없이 즐겁게 유익하게 생활했어요.
- 지난 3년간 아이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초등 입학 전 프로젝트 수업이 아이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어 너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도 잘 짜여 지고 아이도 쉽게 이해하는듯하여 대 만족 이였습니다.
- 가정과의 연계 수업은 아이에게 관심과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와 관련된 책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프로젝트 수업은 아이들의 지식 사고 등 여러 영역으로 성장하게 하는 수업으로 너무 좋습니다. 더욱 개발, 발전시켜주시시오.
-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자주 피드백을 주셔서 무척 감사했고 약수유치원에 최대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년시절의 기억을 즐겁고 신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이들이 교육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선생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많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배움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5세가 되어 “놀이”에서 “교육”으로 스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어 놀랍고 대견합니다. 선생님들의 탁월한 지도 덕분에 생각합니다. 또한 종일반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많이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느라 신경을 많이 못쓰게 되고 선생님들을 거의 뵈지 못하는데 아이가 유독 올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의 따듯한 마음을 아이의 생활을 듣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
- 학부모가 유치원에 연락하기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자로 접근이 가능하게
 - 7세 2반에 담임교사만으로는 교사의 업무로드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각반은 아니더라도 7세반을 두루 보조해주는 보조교사 1인이라도 계셨으면 더욱더 담임교사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네이버 카페 ‘약수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활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활발한 활동 기대해 봅니다.